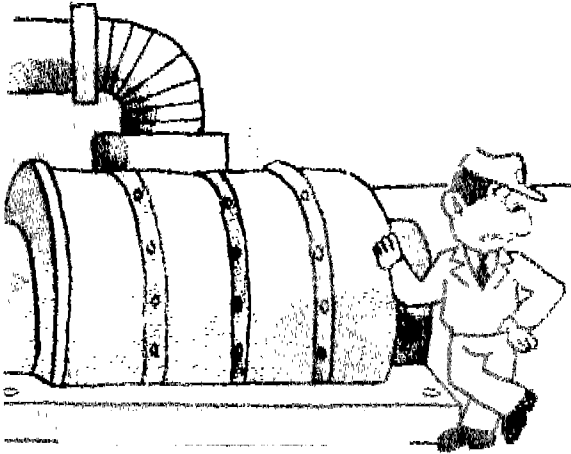


# 精神 衛生面에서 본 安全管理



安 永 壽

大韓電氣協會

電氣使用合理化委員會 專門委員

精神衛生이라고 하면, 一般 事業場에서 생각할 때 精神病의 管理와 같은 印象을 주기쉬우나 實은 勞動衛生管理라는 것은 醫學的으로 非專門家인 라인의 管理者나 第一線의 監督者가 中心이 되어 있지 않으면 遂行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여기에는 精神病의 醫學的인 이야기라든가 專門家인 對策으로부터 떠나 第一線의 監督者들이 部下의 精神衛生面에서 어떠한 配慮를 해야 하는지에 對하여 記述하고자 한다.

## 1. 生産 시스템에 對하여

生産 시스템이라 함은 이른바 Man Machine System (맨 머시인 시스템)으로서, '맨'은 不安定的인 要素, '머시인'은 安定된 要素라고 할 수 있다.

安定된 要素라고 表現되고 있듯이 머시인, 즉 하드웨어(Hard Ware)의인 設備와 맨, 즉 勞動力 또는 맨 파워(Man Power)라고 하는 소프

트웨어(Soft Ware)의 양쪽을 합친 시스템으로서 行하는 것이 生産의 組織이다.

이 가운데 하드웨어의인 機械設備面에 있어서는 定期的 檢査를 한다든가 點檢을 平素에 하여 두면 定期檢査를 오늘 했는데도 不拘하고 다음날 벌써 機械가 故障이 나서 作業을 할 수 없다는 等과 같은 일은 우선 없을 것이며, 즉 定期的인 檢査를 함으로써 比較的 安定된 生産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드웨어의 特徵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人的인 要素에 있어서는 所定の 勞動力을 제공할 作業者側은 오늘 定期 健康診斷을 하여 異狀이 없다고 해도 來日에는 실사를 하여 缺勤을 한다든가 感氣에 걸려 健康이 좋지 않다는 例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Man Machine System의 Man은 不安定的인 要素, Machine은 安定된 要素라 할 수 있다. 이 安定된 要素와 不安定的인 要素를 합친 Man Machine System이라고 하는 것은 統合的으로는 대단히 不安정한 시스템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러기 때문에 Man Machine System을 Best Condition으로 메인テナンス(良好한 상태의 保持管理) 하는 것이 生産活動을 進行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서, 그 權限責任이 各職場을 所管하는 各 라인(Line)의 管理 監督者에게 賦與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라인의 管理 監督者로서 每日의 生産目標을 達成하려면 Man Machine System을 언제나 Best Condition으로 메인テナンス(Maintenance)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安定된 要素는 물론이러나와 不安定한 要素에 오히려 더욱 注目하여 健康上으로나 作業行動上으로 보아도 不安定한 勤勞者 또는 勞動力은 언제나 Best Condition이 되도록 메인テナンス 하는 것이 라인의 管理監督者로서의 당연한 責務라 하겠다.

그 Best Condition으로 메인テナンス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方法이 考慮될 수 있다. 例로 作業者가 負傷한다는 것은 System의 人的 要素가 Best Condition이 아니었다는 뜻이 된다. 負傷이라든가 死亡 또는 疾病을 職場에서 豫防하겠다는 配慮가 一般的으로 安全管理라고 말하여지고 있다.

그러나 라인의 管理 監督者는 生産에 沒頭하다 보면 安全이나 衛生까지 管理할 時間的 余裕가 없기 마련이다. 特히 衛生에 있어서는 이는 醫師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라인의 管理 監督者가 勞働衛生의 管理까지 해야 한다고 하면 누구나 그러한 問題까지 神經을 쓸 수 없다는 反應이 나올 것이 豫想된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頭痛이 있다든가 또는 헉기증이 난다든가 殘業으로 疲勞하다든가 하는 健康이 좋지 않은 상태가 不安全한 行動의 原因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災害가 發生하면 現場에서는 우선 災害分析을 하기 마련이다. 物的인 面에 있어서는 어디에 缺陷이 있었다든가 安全裝置가 작동하지 않았든가 하는 이러한 것들은 곧 알 수 있게 되며, 이에 대해서는 改善 또는 修理가 可能하다. 그

러나 人間에 對해서는 대개가 '本人의 不注意'였다는 판단으로 「不注意에 의한 災害」로 結論짓기 쉽다. 그러나 이 「注意」가 어찌서 「不注意」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하는 點에 對해서는 現場分析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本人의 不注意로 하여금 마땅히 지켜야 할 注意를 遵守하지 않았다, 또는 作業方法과 作業基準을 지키지 않았다는 程度로 하여 그 對策으로서는 '安全教育의 徹底'라는 線에서 結末을 본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더욱 熱心히 하라」 식으로 이룬 바 氣습을 준다는 程度의 安全教育의 徹底가 大多數일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方法으로서는 災害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從來 全國적으로 災害件數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主로 하드웨어의인 對策의 推進 結果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人間の 不注意에 의한 災害라고 表現되는 行動災害는 생각 외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80年代의 安全課題는 뭐니 뭐니해도 行動災害를 如何히 줄이느냐 하는 것이 重點이 되지 않으면 災害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Hardware的인 面만을 아무리 追求해도 災害는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不注意라는 것은 하나의 結果로서 그 누구가 미리부터 不注意를 豫測하고 作業을 하겠는가? 精神病者라면 別問題이지만 正常的인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그것은 自身도 無意識 중에 不注意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作業者로서의 意識이 活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한가지의 事實이라도 반드시 不注意한 背景이 되는 것을 분석하여 그러한 不注意 行動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 原因 또는 背景이 발생하지 않도록 對策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보면 常識적으로 보아 우리는 頭痛이나 腰痛 또는 殘業으로 因한 波勞, 過飲에서 오는 酒滯, 徹夜, 화투나 바둑 등에서 오는 疲勞等 여러가지 人間の인 面에서 있을 수 있는 背景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結果적으로

不注意로 連結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不注意 災害의 發生背景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장 관리자들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한사람 한사람의 作業者에 대하여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配慮한다는 것이 職場의 健康管理

라는 것이며, 同時에 行動災害의 예방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한 사람의 勤勞者에 對하여 그러한 精神的 또는 身體的으로 健康하지 못한 面을 수정 또는 改善해 나간다는 것이, 즉 個別的인 健康을 管理

〈표 1〉 健康狀態의 區分案

健康區分	症 勢		身 體 面 (內臟, 運動器, 感覺器, 神經系)	精 神 面 (心, 氣分, 慾求)	社 會 面 (職場, 家庭, 其他 生活上의 行爲, 行動)
	自覺症	他覺症			
健 康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全身에 異常함을 느끼지 않는다.</li> <li>· 健康診斷 結果 異常없다.</li> <li>· 젊은사람은 体格, 體力를 增進시키고 있다.</li> <li>· 短期間이라면 相當한 無理한 勞動이나 趣味的인 職務에 견디어 낼 수 있다.</li> <li>· 多少Condition이 좋지 않아도 自主的 健康管理에 의하여 곧 回復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希望을 創案할 수 있다.</li> <li>· 現實을 直視하며 그 일에 拘碍받지 않는다.</li> <li>· 어떠한 困難도 創造的 活動으로 處理할 수 있다.</li> <li>· 레저나 일이 調和하여 사는 보람을 느낀다.</li> <li>· 自己 實現 慾求를 滿足시키고 있다.</li> <li>· 相對方의 氣分을 理解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li> <li>· 自己 反省에 따라 自己의  잘못을 改善할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떠한 사람들과도 役割에 따라 좋은 人間關係를 形成할 수 있다.</li> <li>· 職務나 레저에 個性이나 獨創性을 發揮할 수 있다.</li> <li>· 職務에 보람을 느끼며 全力 投球하여 沒頭할 수 있다.</li> <li>· 어떠한 相對者와도 協力하여 社會的 行動을 할 수 있다.</li> <li>· 때로는 無報酬의 서비스도 할 수 있다.</li> </ul>
↑ 準健康 (異常이 곧 回復되는 程度) ↓ 半健康 (異常狀態가 있는 程度) ↓ 固定化된 狀態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手足이나 어깨·등·허리 또는 눈의 疲勞, 때때로 痛症을 느낀다. (그러나 크게 神經을 쓰지 않으며 오래 持續되지 않는다.)</li> <li>· 때로는 胃, 허리의  상태가 나쁘다.</li> <li>· 健康診斷에서 가벼운 異常所見이 발견된다. (尿蛋白 尿糖이 이 때때로 나온다. 血壓이 多少 높다. 가벼운 貧血所見等)</li> <li>· 體力 檢査에서 年令의으로 현저한 低下</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全身이 나른하고 不眠, 마음의 不安定과 不安을 느끼나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然眠하면 좋아진다.).</li> <li>· 슬럼프 氣分</li> <li>· 劣等感에 苦悶</li> <li>· 失戀, 일의 失敗로 마음이 弱해진다.</li> <li>· 마음이 溫情치 못하다. 떠들거나 우울하기 쉽다.</li> <li>· 他人의 氣分을 理解 못한다.</li> <li>· 世上이 싫어진다. 죽고 싶을 때도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家庭, 友人間, 職場의 人間關係가 때때로 잘 되지 않는다.</li> <li>· 일에 실증을 느낀다.</li> <li>· 때때로 싸우기도 한다.</li> <li>· 팀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li> <li>· 일에 실수가 늘어난다.</li> <li>· 일이 고르지 못하다.</li> <li>· 本人은 좋은 氣分으로 하는 行動이 他人에게는 異常하게 보인다.</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病, 傳染病의 早期일 때도 있다 (職業病 初期).</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苦痛이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精神病의 初期일 때도 있다.</li> </ul>
病 患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臨床的 所見이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苦痛이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行動 異常이 뚜렷하다.</li> </ul>

해 나가야 하는 것이 職場의 健康管理이다.

그러기 때문에 라인에서 健康管理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健康管理는 醫師가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企業者가 많은 것 같다.

醫師가 하는 것은 病患에 對한 치료이기 때문에 병자는 의사에게 맡겨야 할 일이다. 원래 病者가 아닌 사람은 醫師는 醫療行爲의 對象者로 보지 않는 법이다. 그런데 健康은 아니지만 病者가 아닌 狀態는 대단히 많은 것 같다. 이것을 두고 表現한다면 「半健康」이라고나 할까.

## 2. 勤勞者의 健康에 對하여

이에 對해서 표1을 가지고 說明하겠다. 健康 狀態의 區分案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제네바에 世界人類의 健康을 爲하여 各國의 專門家로 하여금 檢討하여 各國 政府에 그 結果와 對策을 勸告하고 있는 機關, 즉 WHO (世界 保健機構)가 있다. 그리고 勞動問題에 對하여 같은 일을 하는 機構, 즉 ILO가 있다. 유엔의 한 機關으로서 이 WHO에서는 「健康이라는 것은 身體的으로 異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精神的으로 社會的으로도 좋은 狀態(Well Being)이어야 한다」고 定義를 내리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健康이라는 것은 세가지의 要素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第一은 身體的인 健康, 第二는 精神的인 健康, 第三은 社會的인 健康, 즉 三位一體가 되지 않으면 健康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보디 빌딩(Body Building)으로 筋肉이 發達하여 身體的으로는 아무런 異狀이 없다. 그러나 強하게 보이면서도 精神的으로는 대단히 弱하여 무엇인가 어려운 일을 시키면 「나는 自信이 없다」든가, 일을 하다 失敗하면 「나의 人生은 이제 끝장이다」든가 하여 미리부터 失望하는 사람은 健康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에 比하여 血壓이 높다든가, 糖尿病이라는 가 하여 身體的으로 어느 程度 缺陷이 있다 하

더라도 精神的으로는 대단히 健康하여 언제나 希望을 잃지 않는 사람, 今年은 잘하지 못했더라도 來年에는 꼭 잘 해내고야 말겠단든가, 이번 週는 잘못했지만 다음 週에는 밝은 希望으로 일을 해야겠단든가 하여 언제나 自己 스스로 希望을 創造해 내는 사람의 경우는 精神的인 健康者라 할 수 있다.

또는 표1의 精神面의 두번째를 보면 「있는 그대로 現象을 보고 그 일에 拘碍되지 않는다」, 즉 自己周邊에서 일어나고 있는 現象을 바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며 이에 拘碍받지 않는다는 狀態가 정신적 건강이다.

그러나 拘碍받는 사람은 많다. 예로 어떠한 上司가 여러 職員 앞에서 自己에게 氣을 주었다고 하자. 적어도 自身은 5年 또는 10年이나 되는 古參이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侮辱을 주다니 하고 憤함을 느낀다. 그러한 狀態가 持續되는 동안은 精神的으로 健康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일로 구애를 받는다고 하여 精神病이냐고 하면 그렇지 않다. 醫學的으로는 病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는, 말하자면 精神的인 半健康이라고나 할까.

그 다음에 社會的인 健康이라 함은 사람은 社會的인 動物이다. 그러기 때문에 혼자서는 生活할 수 없다. 2, 3 명이 팀을 짜서 어떠한 일을 한다. 社會的으로 무엇인가 공헌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社會的인 健康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사람들끼리라도 境遇와 役割에 따라 貢獻할 수 있는 人間關係를 形成할 수 있다는 것은 社會的인 健康이 된다. 이에 比하여 혼자서는 일을 할 수 있으나 팀을 形成하면 鬭爭을 해야만 하는 경우는 社會的인 健康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職務面에서나 취미 또는 레저에 있어 個性이나 獨創性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상대라도 協力하여 社會的인 行動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社會的으로 健康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